

## 산상보훈 - 선행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

### 의식적인 선행에 대한 경고

마태복음 6장을 살펴봅시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근본 원칙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며 마지막으로 그 원칙을 확대하여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6:1)

첫번째 원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를 행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행할 때 그 동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나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심판날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들은 그 이면의 동기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느냐가 문제입니다. 만일 당신의 의로운 행위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 가치도 없는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이 불살라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는 다 불쏘서 그 공력을 시험받게 될 것이며 우리가 주를 위해 했다고 한 일들 중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 공력이 불 가운데서도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동기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를 위한 일을 하도록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에 대한 가장 위대하고 또 유일하게 합당한 동기입니다. 사랑 없이도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가령 제가 전채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난 후 기자회견을 요청하고 TV의 토크 쇼에 나가서 점잖은 미소를 띠우며 스스로 이러한 엄청난 구제 사업을 벌였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사람들이 감탄하고 놀라서 ‘척 스미스, 그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대단하군!’하며 칭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받을 상은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저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상급대장을 살펴보시며 ‘어디 볼까? 척 스미스의 상급란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구나’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니, 하나님, 아무 기록도 없다니요. TV 토크 쇼도 안 보셨나요’ 하며 확인해보려고 해도 ‘척, 너는 그 때 사람들로부터 상을 다 받지 않았느냐’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예수께서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즉 동기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방식으로 선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14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고 하신 말씀과 좋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에 힘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선행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 줄 것을 기대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상급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상급받을 것을 전혀 바라지 않고 그저 착한 일 그 자체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하기 좋은 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동기가 위장된 발언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구나.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선을 행하다니’ 하며 감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식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상급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구원은 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십니다. 이것은 나의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단순히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 즉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상으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내가 일해서 받는다거나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8-9).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수행했느냐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상급을 받으려는 기대를 갖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하지 말라는 기본원칙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구제, 기도 및 금식이라는 세 가지의 행위를 실례로 들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을 행하는 데에 옳은 방법과 그릇된 방법을 가르쳐 보이셨습니다. 옳은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행한다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지만 그릇된 방법으로 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행위를 있게 한 동기, 즉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함인가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의 칭찬, 즉 사람들이 주는 상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가 벌어집니다. 해마다 갈수록 신기한 묘기들이 백출합니다. 로켓으로 쏘아 올린

폭죽들이 오색의 광채를 발하며 순식간에 ‘펑’하고 머리 위에 터진다거나 공중에서 회전을 반복하면서 다른 불꽃들과 함께 아름다운 무늬를 창공에 그리는 것을 보고 관중들은 매료되어 ‘잘 한다’는 감탄사를 외치며 박수를 보냅니다. 무수한 섬광을 발하며 순식간에 왔다가 사라지는 불꽃들을 관중들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지켜봅니다.

세상의 영광은 불꽃놀이의 폭죽들이 ‘펑’하고 터졌다가 잠시 여운을 남기며 사라지는 현상과 흡사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너무도 빠르게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자고 깨어나면 새로운 인기 스타가 등장하여 어제의 스타가 누렸던 영광을 빼앗아 갑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스타를 기다립니다. 다니엘서 12:3에서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행을 하기 원하는 분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인간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상급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6:2)

저는 어느 부흥사가 설교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가운데 15명이 제 사역을 위해서 1천 달러씩 현금할 것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15명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1천 달러를 현금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서자, 그는 “할렐루야, 축복받은 성도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외치며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일어난 성도는 손에 수표를 들고 있었으며 그 부흥사는 그 수표를 재빨리 받아 넣고는 “이 현금은 제가 하나님 대신에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 없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그 부흥사는 물론 그 현금을 바친 사람도 그의 1천 달러에 대한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이미 1천 달러의 현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공포했기 때문에 자신의 상을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훌륭한 자선가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많은 설교자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못한 동기를 유발시켜 현금하도록 만드는 사실을 매우 슬프게 여깁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현금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을 상을 그들이 강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죄입니다. 양들은 순진한 짐승이라 이런 것을 잘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양으로 현금을 유도해서 받아내는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판단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행해지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베풀어야 합니다. 크게 떠벌이며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현금할 때에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7에서 현금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억지로 서약했기 때문에 아까워하면서도 내는 현금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현금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선을 많이 베풀다는

사실을 모르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헌금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였는데 여기서 ‘즐거 내는’이라는 말은 ‘갈갈 웃으며 낸다’라는 말입니다.

헌금할 때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 헌금은 드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헌금을 원하시지도, 필요로 하시지도 않습니다. 헌금드리는 문제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극히 개인적인 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당신의 헌금과 자선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며 자선을 베푸는 일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6:5)

유대인의 생활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쉼마도 암송해야 했습니다. 쉼마는 구약성경 가운데 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첫부분은 신명기 6:4에서 시작됩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이 쉼마를 암송했습니다. 오전 9시 이전에, 밤 9시 이전에 하루 두 번씩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쉬메나쓰’라는 기도문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쉬메나쓰’란 18개의 독립된 기도문인데(후에는 19개가 되었음), 모든 유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암송해야 했으며 하루에 세 번씩 외웠습니다(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들은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의무적으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드려야 했으므로, 이것이 그들의 관습과 의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어떤 유대인들은 아침 9시가 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장소에서 이 장황한 쉼마와 쉬메나쓰를 암송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보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믿음이 매우 깊구나’하며 칭찬했습니다. 이 칭찬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매우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단추만 누르면 저절로 입력되었던 기도가 나오는 그런 식이 됩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나오는 기도는 공허한 단어의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아볼 수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칭송을 듣는 한 목회자를 실제로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하게 그분과 제가 같은 여름 수련회의 강사로 초빙되어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그가 어떻게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칭송을 듣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예배당에서 전캠프에 들리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명성을 갖기를 참으로 원하실까? 하고 의문을 가져 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명성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동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동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도의 동기가 그릇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기는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스스로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속는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개인적 동기와 관련하여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이다”(시 139:4-6).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결말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오, 하나님, 나는 자신을 속일 가능성이 많사오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깨우쳐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동기를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옳은 방법과 동기로 선행과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이 허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주의하여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려는 동기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 드려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갠아주십니다.

기도하는 데 두번째 잘못된 것은 말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일정한 시간 이상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합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한 기도문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대개는 상당히 짧은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을 긴 시간 동안 하려고 하니 자연히 공허한 상투적인 문구들을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기도는 꼭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먼저 앉아서 당신의 관심사를 아뢰고,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솔직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있었던 좋고 나쁜 일들의 세목을 일일이 그분께 알려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교도들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의미없이 공허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의 경우는 ‘축복받으신 마리아여’ 또는 ‘우리 아버지여’를 계속 반복하도록 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헛된 반복에 불과할 뿐입니다. 단순히 암송으로 읊어대는 주기도문은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의 지성과 의지와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6:9a)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을 살펴보면 날 때부터 소경 된 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후, 바리새인들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 되었던 사람을 두번째 불러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예수)이 죄인인 줄 아노라”고 이르자 그 사람은 “그(예수)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고 다시 묻자, 그 소경 되었던 사람은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들고자 하나니까...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요 9:27, 30, 31)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이 나서 열심히 예수를 옹호하는 이 소경 되었던 자에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하며 화내며 그를 쫓아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이 소경 되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에게 한 말, 즉 요한복음 9:31은 영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도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는 죄인의 기도 한 가지는 바로 세리가 드렸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마음에 악을 품고 있으면 주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가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끊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기도에는 어떤 관계가 설정되는데, 그것은 어린 아이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6:9b)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경외한 나머지 거룩한 그분의 이름을 감히 그들의 입으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본을 만들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 모음을 생략하고 자음만 썼습니다. 모음만으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웨’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발음을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야웨’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정확한 발음은 후세에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사본에 옮겨 적었던 서기관들은 이 단어가 나오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 목욕을 하고 새옷으로 갈아입은 후 경건한 마음으로 새 잉크 통에 새 펜으로 자음만을 적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구절을 옮겨 적어야 했던 날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이름이 거룩하고(holy) 지존하시도다(reverend)”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기도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람의 이름 앞에 ‘reverend’가 붙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성직자의 명칭으로 영어권에서는 이름 앞에 Reverend 또는 약어로 Rev.로 사용되고 있음-역주). 하지만 제 이름 앞에는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척 스미스는 지존할 만한 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도 이름 앞에 어떤 것을 덧붙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 이름과 관련하여 The Reverend Chuck Smith 라고 하기도 하며, 어떤 분은 그것도 모자라서 The Most Reverend Chuck Smith 또는 The Most Right Reverend Chuck Smith 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의 이름 앞에 여러 가지 칭호를 붙이려는 노력은 헛된 일이며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칭호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하시며 지존할 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명칭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명칭의 사용을 엄숙히 반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이 ‘Reverend’라는 칭호를 상용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결코 높임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지존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첫번째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식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렘 32:2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기도할 때 자주 자신의 한계를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는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지 않습니까? 나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요, 불가능한 일이므로 하나님에게도 그러리라는 발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인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6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고 또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계심과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기원입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도 기원입니다. 이렇게 처음 세 가지의 기원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우선적인 기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수단으로 기도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타락된 세상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에 따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모든 것은 이미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부여하신 도덕적인 인격체로 창조하셨으며 이러한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존중하시고 꺾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곧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간절히 원함으로써 참여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KJV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라고 되어 있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He Shall give it to you)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수 있도록’(He may give it to you)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즉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자신의 의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텔레비전이나 순복음계열(Full-Gospel circles)을 통해서 매우 인기를 끌고 있는 설교자들 중에는 이와 관련하여 잘못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복음계열로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잡고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기도로써 하나님께 강하게 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셔야만 하는 작은 요정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저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셨다면 이 세상은 아마도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부분적이며 표면적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가 많음을 시인합니다.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기도하다가 완전한 지식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가 알지 못하고 기도한 영역에 대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속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즉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온당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6:11)

이 기도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6:12)

주목해야 할 구절입니다. 11절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현재를 위한 기도이며, 12절에서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죄, 즉 과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주님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는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을 바라는 것은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 사항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끝납니다.

기도는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경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인식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만을 느끼고 압도당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느끼거나, 아름다운 꽃을 보고 창조의 하나님을 느끼고, 또 어린 아이의 출생을 통하여 생명체를 만드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경배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간구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나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는 내 주변의 타락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입니다. 세 가지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보 간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즉 경배입니다. 주기도문이 경배로 시작해서 경배로 끝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간구에서 시작하여 중보로 옮겨가지만 모범적인 기도는 중보에서 시작하여 간구로 이어집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기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와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2절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다른 간구 내용들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를 근거로 주어진다라는 의미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행함으로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에서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6:14-15)

제가 이 말씀을 바꿔야 하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우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이는 베드로의 수학적 용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라고 물었을 때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상당히 자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하고 강조한 듯합니다. 예수님은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큰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우리도 당연히 남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훌륭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계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없드리어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세계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없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나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18:23-35)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제 본성에 반대되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의 성품은 당한 만큼 갚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한번은 누군가가 제 차에 길게 상처를 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저지른 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 인젠가는 누군가 제 차에서 양복 두 벌을 훔쳐갔습니다. 세탁소에 가져 가려던 더러운 옷들이었는데 그걸 훔쳐가서 어떻게 할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배가 나온 사람이 입는 양복이 몸에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사람에게 대해 용서의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의 옛 성품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썩어질 것들이라...”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보일수록 대적자는 많아집니다.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대한 미움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거나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오르도록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의 몸 안에서 화학적 물질들을 분비시켜 내부에서부터 육체를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리체계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해로운 물질을 분비시키는 원인이 되는 미움, 복수심, 분노 등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바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과멸시키고 있는 현실은 진실로 비극입니다. 다음 구절에는 금식이라는 의로운 행위를 하는 데 대한 그릇된 방법과 올바른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6:16-18)

저는 목회 초기에 자주 금식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금식하는 동안에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사람들과 가정을 심방하기도 했는데, 마음씨가 고운 주부들이 집에서 만든 과자 따위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참으로 고맙습니다만 저는 금식중입니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금식을 깨고 그 과자를 먹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사람들의 존경심이 그 금식에 대한 상이 되어 버립니다. 저는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상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서는 안 되므로 이 고민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었는데, 특히 갓 구워낸 과자를 앞에 두고 어디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저는 그 과자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사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재산에 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6:19)

몇 해 전에 사람들이 금과 은을 사기 위해서 소동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유행 구매로 인해 수요를 창출해 내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형성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금과 은을 매입하여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금으로 통신판매를 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금과 은을 매입하도록 강권했습니다. 그 편지들을 보면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곧 휴지조각이 될 돈으로 금과 은을 사두라고 재촉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저들은 휴지조각 같은 돈을 받고 자기들의 금덩이를 내준다고 하는가?”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을 사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과 은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은시장이 과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까? 은사업을 하던 헛트는 수십억 달러나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가 만일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읽었더라면 그러한 엄청난 고통은 면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은이 다시 1온스에 5달러가 되었습니다. 금은 1온스에 300달러입니다. 예전에 금이 1온스에 800달러였었는데 지금은 30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1온스 당 800달러나 주고 금을 산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게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보물은 그 가치가 점점 상실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좀과 녹이 슬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해 갑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좁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6:20)

이 말씀 이면에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즉 21절의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는 진리입니다. 만일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다면 마음도 또한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보화를 하늘에 쌓는다면 마음도 또한 하늘의 영적인 것에 있게 됩니다. 하나는 일시적이요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곧 주인에게 해고당하게 되어 있는 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자로서 곧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현실 속에서 약삭빠른 꾀를 부렸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불러다가 그 빚을 임의로 감해 주었습니다. 기름 100말을 빚진 자에게는 50말로,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석으로 감해 주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이렇게 함으로써 해고당한 후 이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을 받아 나름대로의 생활을 해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지기의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부정직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덧붙여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지기는 현재의 주어진 위치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이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대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현재에 주어진 기회들을 잘 이용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죽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적 장부에 추가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살아 있을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써버리면 주님의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해서 하늘에 우리를 위한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모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영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6:22-24)

이 말씀도 보물을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보물 자체를 중히 여기면 그 보물이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배금주의에 빠져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중히 여기다보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되며, 하나님을 중히 여기게 되면 돈에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고 애쓰는 것은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6:25-26)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새들은 일하지도 않지만 천부께서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씨를 뿌리지도, 수고도, 수확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직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새들이 그저 나뭇가지나 전봇대 줄에 앉아서 입만 벌리고 벌레들이 날아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새는 땅으로 내려와 벌레를 열심히 찾아 먹습니다. 결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저 할 일 없이 돌아다니거나 누워 있으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내용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할 힘과 능력을 주셨으며, 우리가 이 힘과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집세를 어떻게 낼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새들을 돌보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키가 작다고 걱정함으로 키가 자람니까? 걱정함으로 상황이 변화됩니까? 걱정은 걱정만 일으킬 뿐이며 현실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크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6: 28-30)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과 염려를 대조하시면서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질책하십니다. 믿음과 염려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서 사라질 들크도 그같이 아름답게 꾸며주시거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야 얼마나 잘 입혀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6:31-32)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우리 삶에서 가장 으뜸되는 추구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이방인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열정적으로 추구합니다. 이방인들은 이교도라고도 해석되는데, 그들은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걱정하고 추구합니다. 미식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 많이 탐독하는 잡지는 온통 의복이나 음식에 대한 관심사로 차 있습니다. 이런 관심과 열정은 실로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6:33)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옷과 음식을 사는 데, 또한 이것들을 사기 위해서 돈을 얻는 데 얼마나 많은 관심과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유행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압박감을 주어 유행에 지난 옷들은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버리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업주의의 희생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음식준비하는 데에도 게으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빵 한 덩어리를 사는 데 1달러 25센트를 줍니다. 19센트만 들이면 생밀을 사서 건강에 좋은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도 만들어 놓은 빵을 삽니다.

우리들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오랜 시간 길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6:34a)

우리의 주된 염려가 내일 일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일보다는 내일 일에, 다음 주의 일에, 즉 미래에 대해서 더 염려합니다. 오늘은 이미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6:34b)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약 1:22). 예수께서도 산상보훈을 끝내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7:24)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세상 일들로 인해 근심하며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합당합니다’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로서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자와 같이 폭풍우가 불어 닥칠 때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산상보훈을 묵상하며 그대로 실천하도록 합시다.

